

#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,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합니다.

## <보도내용>

- 2025.7.3. 연합뉴스는 “이재명 정부 첫 달 ‘한은 마통’ 18조원 썼다” 기사에서,
  - 6월 한은에서 17조 9천억원을 일시차입 하였으며,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은 일시차입 상시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 <기획재정부 입장>

-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‘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\*’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.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, 이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합니다.

\* 「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(‘25.1.9일)」

- 특히 6월의 한은 일시차입은 ‘25년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합니다.
-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사용해왔으며, 7월 이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입니다.

\* 6월 한은 일시차입금(조원) : (‘22) 11.7 (‘23) 15.9 (‘24) 20.9

담당 부서	국고국	책임자	과 장	정동영 (044-215-5110)
	국고과	담당자	사무관	주세훈 (pleasehun@korea.kr)